

- 일시 : 2015년 3월 19일(목) 14:32 ~ 20:15
- 장소 : 예술가의 집 2층 영상감상실
- 심의위원 : 정선영, 박영근, 이만방, 정태봉, 이종진, 정치용

2015년도 창작산실 오페라부문의 심의 중점방향은 단순히 공모에 신청한 작품에 대한 심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창작오페라 제작 환경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사업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까지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실상 올해 공모에는 지원할만 한 작품이 전무하다는 의견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완을 통해 향후 레파토리화 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심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모든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은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한자리에 모인 6인의 심의위원이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한 비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간오페라단의 창작환경에 대해 스스로 참여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고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탈피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절박함에 기인한다.

우선 1부 심의로는 시범공연지원사업에 대한 참가대상을 선정하는 건이 진행되었다. 총 6개 단체가 지원한 이번 공모는 먼저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술위원회 사무국에서 심의위원들의 사전 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면인터뷰 질문이 각 단체별로 3~4개 정도가 전달되었고, 단체는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확인 및 지원신청서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단체가 좀 더 자신들의 작품과 준비상태를 심의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단계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2개 단체가 심의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3.19(목) 현장 인터뷰 장소에는 나머지 4개 단체의 대표자 혹은 예술감독과 작곡가 등 각 2명씩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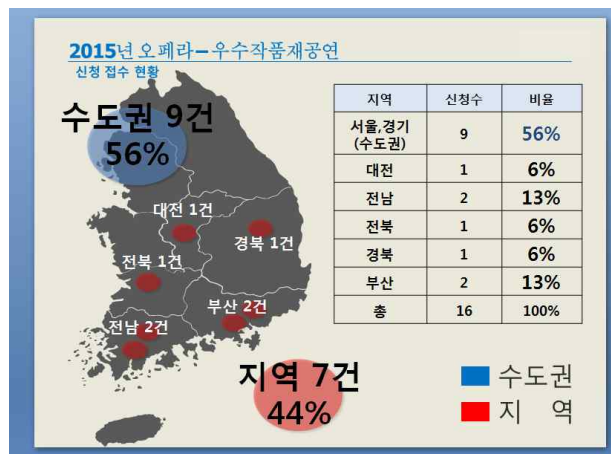


<시범공연지원 현장 인터뷰 진행>

이번 심의의 목적은 2차례에 걸쳐 진행될 우수작품제작지원 지원대상 1작품을 선정하게 될 후보가 될 수 있는 시범공연에 과연 이 단체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있었다. 특히 전년대비 개선사항으로 시범공연 심의 방법을 4월(피아노+보컬 진행상태 점검), 6월(오페라콘체르탄테 형식 최종심의)로 세분화했다. 단순히 시범공연 대상을 선정하고 3개월 후 최종 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범공연에 참가하는 모든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우수작품제작지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정식 무대에 올려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심사자료는 사전 섭외시 전체 심의위원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심의자료가 전달되었고, 약 일주일 간 악보 및 지원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 인터뷰 장소에서 6명의 심의위원과 4개 지원신청팀(총 8명)이 집단 인터뷰를 115분간 진행하였다. 당초 50분으로 계획된 인터뷰는 공통질문과 단체별 질문을 통해 질의응답이 진행되었고, 많은 질문으로 인해 예정보다 길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심의위원들은 본 공모사업의 목적인 우수한 창작오페라를 개발한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4개팀 모두에게 무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4개 팀 중에는 이미 작년 동일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재 도전을 위해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이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며 이러한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부 심의는 우수작품제공연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안건이었다. 2015년도 창작산실 오페라분야 지원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기존에 장르별로 주관기관에서 운영할 때(오페라의 경우는 국립오페라단)에는 창작산실 우수작품제작지원으로 선정된 작품만 신청자격을 부여했던 것에 비해, 제한요건 없이 기존에 발표된 창작 오페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2건 신청 대비 총 16건이 신청하며 대폭 증가하였다. 지난해부터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점을 수용한 결과 전국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지원신청단체의 분포가 지역에서 크게 비중이 높아진 것이 이번 심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심의를 위해 예술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제한된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각 단체와 직접 통화하여 제출한 작품 영상의 중요한 부분(즉, 심의위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작품의 주요 장면 등)을 일일이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 편집본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또한 영상 확인이 중요한 심의 포인트인 관계로 심의장소를 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에서 운영하는 영상감상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심의위원들은 16건의 심의대상이 제출한 관련 프로그램북, 홍보자료 등 참고자료와 지원신청서,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수작품제공연 영상심의 및 종합 검토 >

모든 단체의 영상을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심의위원들은 다수의 작품이 여전히 전형적인 이탈리아 오페라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스토리 전개 방식이나 세부적인 연출을 차지하고서라도 음악적인 완성도가 많이 보완되어야 할 신청대상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창작오페라의 많은 경우가 역사 속의 인물이나 전통적인 소재에만 매여 있는 경향이 있는데, 오페라의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새로운 소재의 대본(libretto)가 보다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정된 3개 단체의 작품은 향후 공연계획(공연장, 출연진, 진행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단체 스스로 본인들의 창작오페라 레파토리화를 하려는 의지가 타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향후 이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가 홍보, 관객개발 지원 등의 비재정적인 지원 역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